

작품 : 남영선 루시아 (이기대성당·부산가톨릭서예인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제 1 독서 지혜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가.2드르~3.4-5.6 (◎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 들 환 호 하며 거 두 리 라.

1.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2.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3.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4.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서 로마서 8,31~39

복음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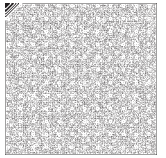
복 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한가위 차례예식은 4면, 전례는 5면에 있습니다.

순교 성인들에게 드리는 고백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한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오랜 시간 짓눌려 살아왔던 시간이 목숨을 잃었던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인 듯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축일을 만나면 왠지 모를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무거운 짓눌림을 느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웠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정하상 바오로, 101위의 순교자들 이름 위에 아로새겨진 피의 증언은 세상 안에서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비겁함을 채찍질하는 듯합니다. 칼 라너가 말했던 “익명의 그리스

도인”이라는 본래의 신학적 문구가 아니라 신앙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 놓고 증거하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고상한 신앙인 양 비겁하게 숨기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이름을 감추었던 지난날의 비겁함이 자신 안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압니다. 끌레셔츠의 로만 칼라를 한쪽으로 밀어 넣고 단추 하나를 풀어버리는 순간이 늘 무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압니다. 식당에서 그은 움츠린 십자가는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료 사제들의 아픔에도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교 성인들의 축일을 맞는 자신의 불편함은 그들의 숭고하고 위대한 신앙심에 짓눌려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한 신앙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묻는 이에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새벽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회개의 눈물을 함께 따라 흘리며, 딱히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미세한 두려움이 항상 공기처럼 누르기에 참아 드러내 놓고 행동하고 말하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을 한국의 순교 성인들에게 고백하며 그분들처럼 순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았으면 합니다.

김태형
세례자요한 신부
성소국장



예전에는 한자 덕(德)자와 득(得)자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명절에 서로에게 건네는 좋은 말, 덕담(德談).

하지만 ‘지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내 생각만 하고’ 내뱉다 보면

오히려 독담(毒談)이 되어 상처주기 일쑤입니다.

내가 들어 좋은 덕담 말고

듣는 사람이 감동받는 득담(得談)들로

풍요로운 한가위(秋夕) 되시길...

*덕(德) : 어질다,
득(得) : 얻다, 이롭다,
독(毒) : 해롭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hang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9.24(월)~25(화)
김태형 신부(성소국장)
9.26(수)~29(토)
조항희 신부(태종대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추석특집 9.24(월) <퀴즈 콘서트, 성경에서 온 그대> 스페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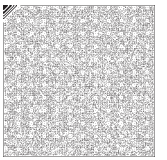
9.25(화) <함께하는 여정> 스페셜
2018 성가정 축복장 수여 가정

신부들의 수다 <스페셜>

9.24(월), 25(화) 17:00~18: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추석특집 <신부님 프로젝트> 스페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나홀로 성지 순례’를 한 지 2년째다.

주교회의 성지순례사목 소위원회가 선정한 전국의 성지 111곳 중 10여 곳 밖에 찾지 못할 정도로 느리다. 그래도 나홀로 순례를 계속할 참이다. 그 이유는 단체성지 순례에서는 맞볼 수 없는 기쁨 때문이다. 그 기쁨은 길을 헤맬 때 마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 첫 영세자 이승훈 묘를 찾아갈 때다.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합정역에서 인천행 버스를 탔다. 인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 앞에 내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묘가 있을 만한 산이 보이지 않았다. 묻고 물어서 묘 앞쪽의 장수 정수장까지 갔으나 찾을 수 없었다. 지칠 때쯤 맞은편에서 중년 부부가 걸어왔다. “이승훈 묘를 아십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길을

가르키는 손가락 끝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다. “아, 신자시군요” 그 부부는 정수장 담장 끝에서 시작하는 입구를 가르쳐 주었다. 그 부부가 가르쳐 준대로 정수장 철조망을 따라 가니 ‘십자가의 길’ 끝에 이승훈 묘가 있었다. 한국 천주교 첫 영세자로 존경받는 이승훈도 나약한 인간이었다. 여러 번 배교를 한 끝에 순교를 했다. 나는 묘 앞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나홀로 성지순례는 항상 이랬다.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출발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때마다 길을 알려주는 신자나 은인을 만났다.

되돌아보니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방향을 잡아 주시는 하느님이 계셨다. 그 보살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성지순례 때마다 든다. 그분은 내가 세상살이로 헤맬 때마다 바른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느님은 ‘내 인생

의 내비게이션’이었다.

물론 관광버스로 가는 단체 성지순례나 자가용을 이용한 그룹 성지순례는 수월하다. 번거롭게 길을 물을 필요가 없다. 차에 앉아 있으면 성지까지 데려다준다. 몇 군데 성지를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된다.

하지만 나홀로 성지순례는 오가는 동안 기도하고 성지 공부를 할 수 있어 좋다. 성지 근처에서 헤맬 때마다 두근두근 거린다. 오늘은 어떤 안내자를 보내 주실까. 그 설렘 때문에 오늘도 나홀로 성지순례를 나선다.

오늘은 성 김대건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 순교자성월이기도 하다. 가능하면 나홀로 성지순례를 통해 많은 은총을 체험하기를 기도한다.

■ 김 상 진 요한

연론인 daedan57@hanmail.net

환경과 생명 청소 시간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종교는 일찌감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물질적인 대가가 없기 때문에 종교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돈을 들여가며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가끔이나마 기도를 드리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종교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한 다들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열심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잡아먹으며 또 하루를 버티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세상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거짓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것

은 낡은 과거를 끊어내고 찬란한 미래의 최신식 사고방식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전 과거로, 태초로 돌아가 거기서 샘솟아 오늘까지 흘러오는 은총의 샘물을 맛보는 것입니다. 곧 한 처음 마련된 낙원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머물 고향이라 여기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는 이 자연과 그 속에 깃든 신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30년간 자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제일 먼저 하느님의 창조신비이고,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익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참된 사람이셨던 그분의 맑은 눈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를 창조의 신비에 비추어 다시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한가위 차례(茶禮) 예식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준비

1. 마음과 몸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다.
2. 상차림 :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시작 예식

성호경

시작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작기도

＋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1코린 13, 1~13, 에페 5, 6~20, 요한 15, 1~12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말씀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가톨릭 기도서 P.74~79)

마침 예식

마침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호경

음식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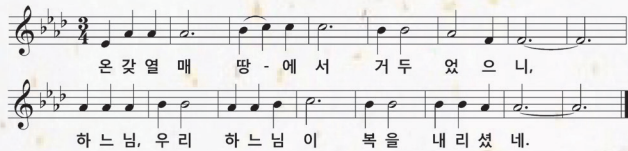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

한가위

제 1 독서 요엘 예언서 2,22~24.26ㄱ~ㄴ

화답송 시편 67(66),2와 4ㄱ.5ㄷ과 6.7~8 (◎ 7)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2.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3.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

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복음환호송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루카 12,15~21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선교용 · 선물용

2019년

교구 탁상용 달력 보급



* 주제 전례시기에 맞춘 제대꽃

■ 신청방법 교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에서 <천주교부산교구 탁상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 내용: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3,000원 / 1부

■ 보급방법 12월 초, 본당에서 수령

■ 입금계좌 (입금자명: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농협 301-2018-0726-51 천주교부산교구

■ 문의 051-629-8752 (전산홍보국)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늘공원**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 24일(월) 11:00 봉안당 내 경당

▶ 추석 당일엔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 (055) 374-8732~3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교구 소식

묘지 벌초 봉사에 구슬땀... - 명지, 전하, 운전기사사도직



명지



전하



운전기기사사도직

명지성당 반석회(주임 : 김상균 신부, 회장 : 임영도 요한) 회원들은 지난 9월 15일(토) 조씨 형제 순교자성지를 방문하여, 묘지 벌초, 환경 미화, 묘지 참배를 했다.

또한 전하성당 베드로회(주임 : 윤정환 신부, 회장 : 홍병환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지난 9월 9일(일)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본당 구역 내 무연고 묘지를 벌초했다.

교구 운전기사사도직(지도 : 김두완 신부, 회장 : 전규상 아르세니오)에서도 지난 9월 5일(수) 서구 구덕산 꽃마을에 있는 마리아마을 가족들의 무연고 묘지를 벌초했다.



울산대리구, 평신도희년 기념 도보성지순례



울산대리구 평신도사도직협의 회(지도 : 이강우 신부, 회장 : 박영찬 요셉)주관으로 지난 9월 15일 (토) '평신도희년 기념 도보성지순례'가 대리구 신자 5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신자들은 복산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복산성당에서 울산병영순교성지까지 도보순례 하였다.

꽃바위성당, '믿음의 해' 실천지침 독려...



꽃바위성당(주임 : 차공명 신부, 회장 : 최병헌 방지거)은 목주기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6일(일) 교중미사 중에 8월 한 달 동안 본당에서 목주기도를 많이 봉헌한 신자 김선녀 엘리사벳 외 11명에게 선물을 수여했다.

수정성당, 창조주의 어머니 Pr. 2,000차 주회

9월 11일(화)
주임 : 조성제 신부
단장 : 이경숙 테오도로



남천성당, 장학금 전달식



9월 2일(일) / 대상 : 중고등부 6명, 교리교사 6명, 성가대 1명(각 100만원)
주임 : 예정출 신부, 회장 : 엄정일 요셉

연산성당, 예비신자 성지순례



9월 9일(일) 오륜대순교자성지
주임 : 심순보 신부, 회장 : 이춘도 안토니오

하단성당, 레지오 전단원 가두선교 실시



9월 15일(토) 가락타운 일대
주임 : 권동국 신부, 회장 : 정송술 안토니오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개설
개강일 : 12.10(월), 수업일 : 주5일 (월~금) 4시간/일
대상 :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제한 인원 내에 등록 순 선택)
수업구성 : 한국어 능력에 따라 15명 이내의 클래스 구성
수업내용 :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교육
정학제도 : 반별 성적 우수자에 한 해 다음 학기 학비 일부 지원
문의 : 한국어 교육센터 510-0866, dengnx@cup.ac.kr
입학처 : 051-510-0701-4 / www.ipsi.cup.ac.kr

최신 영상 의료기기 도입

- 최고의 화질과 영상을 구현
- 정확한 영상으로 질환의 발견을 향상

[투시촬영기] [유방촬영기]
소화기계, 비뇨기계, 담도계, 유방내 양성, 악성종양유무, 미세
생식기계 등의 기관 검진 석회화, 유선염 등의 정밀한 검진

부산가톨릭의료원 문의 : 461-2377~8
메리놀병원 (영상의학과)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만 세상

가톨릭센터 다목적 공간 **에코(ECHO)**
(복음의 메아리, 믿음의 반향, 마음의 울림)

합주, 연습실, 녹음실, 자료실의 다목적 공간!
많은 관심과 사용문의 바랍니다

사용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 (가롤로) · 김경자 (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나가사키 성지순례 전문

1. 카멜 3박4일 <479,000원>
2. 대마도 매일 : 119,000원~

(주)발해투어
황백현 (프란치스코)
T. 253-5887

인산죽염부산지사(동래)

www.insanlove.com
대표. 김기룡 (야고보)

죽염, 유허오리진액, 호두액, 친환경
557-5553
동래 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훈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름,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엽, 광성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박우일(요셉), 박동욱(안드레아)

754-9975~6

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타워 15층

SINCE 1965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T. (대) 632-5690
양홍식(토마스) 유병애(루시아)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짚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짚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짚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

삼진커텐

수입커텐, 완제품커텐, 우드브라이트, 콤브리브라이트
이영복(요셉) · 김미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9월 행사

· 9.28(금) · 전주교구 전동성당
문의 : 629-8760(성소국)

10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10.14(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제1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13(토)~11.10(토) 매주 토요일 15:00~21:00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 (종교무관)
접수 :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 010-3460-0696, 010-6408-6111

제5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1(목)~11.8(목) 매주 목요일 10:00~15:00
(5주 과정) · 부산가정성당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 (종교무관)
접수 :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 010-9907-1767, 010-2202-0470

기관·제 단체·위원회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9.28(금) 19:00 / 문의 : 441-6403
· 노동사목센터(사상성당 옆)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9.28(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바로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추석연휴관계로 후원미사 없습니다
문의 : 514-6988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청소년·젊은이 기도회
· 9.23(일) 추석 휴회
· 9.24(월) 추석 휴회
· 9.26(수) 추석 휴회
- 수요치유기도회
· 9.26(수) 추석 휴회
- 금요철야기도회
· 9.28(금) 22:30~29(토) 04:00
강사 : 김기욱 신부(구포성당 부주임)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54일(9일)기도
· 10.3(수)~11.28(수) 매주 수요일, 버스 운행
회비 : 2만원(기도서, 봉헌초 포함)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9.29(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 622-5588(평협)

가톨릭서예인회 9월 정기모임

· 10.1(월)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 앞)
문의 : 010-8521-9522(회장) ※회원 수시 모집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51,20평 / 15,88평)
문의 : 462-1870(행정실)

제24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 10.2(화) 19:00 가톨릭센터
과정 :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 불이 사상으로 세상 살기(권사용)
수 : 유토피야 이야기(이동문)
목 :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 속의 '메멘토 모리'
읽기(김해룡) / 문의 : 510-0554(인문학연구소)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
(일~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모집·기타

새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피정

· 9.30(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 왕영수 신부 / 신청 : 9.26(수)까지
참여비 : 1만원(중식 포함)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꿈을 통한 자기내면 여행

개강 : 10.1~12.3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 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무의식의 자기 통합작업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계간(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겨울호 마감 : 10.10(수)
보낼 곳 : rose0624@hanmail.net
문의 : 010-9365-0370, litera.catb.kr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예수성심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9.28(금) 13:30~16:30 · 성분도 은혜의 집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강의 : 김대선 신부 / 문의 : (02)379-8091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9.29(토) 11:00(법일성당 입구 김인파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묵주기도의동정녀마리아기념일 1일 무료피정

· 10.7(일) 10:00~16:00(점심 제공)
· 부산 마리아 피정센터(동향성당 내)
문의 : 010-4940-4819(티엠프스마리아성심수녀회)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

심화과정 : 10.20(토) 영성의 집
기초과정(19차) : 12.15(토)~16(일) 영성의 집
문의 : 010-3847-2796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1.22(목)~12.5(수) · 서유럽, 스페인
(로마, 아씨시, 바르셀로나, 파티마)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집직원 모집

직종 : 편집 1명(교정, 교열) / 제출서류 :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람마당-소식 참조
마감 : 10.24(수) 도착 서류까지

한티순교성지 피정

· 10.1(월) 10:00~16:00
주제 : 나보다 더 (순교영성)
강사 : 권동근 신부(한티순교성지)
문의 : (054)975-5151

성도미키콘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십피정 : 10.3(수)~6(토) / 회비 : 28만원
성경통독피정 : 11.3(토)~11(일) / 회비 : 48만원
문의 : 010-3340-0201, 010-4993-4394

정하상교육회관 어르신을 위한 특별피정

· 10.17(수) 16:00~18(목) 14:00 / 회비 : 5만원
· 정하상교육회관

제7기 김종수 주교의 말씀피정

· 10.19(금) 14:00~21(일) 16:00 / 회비 : 15만원
· 정하상교육회관 / 주제 : 기록하신 하느님, 절
투하시는 하느님(전기예언서)
문의 : (044)863-5690~2, 010-8848-569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 입양)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수도회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요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 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 취업연계, 우수훈련강사진 818-1004, 245-1004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7명 : 박인호(투과), 한경문 최병락, 유관희, 남화성, 김윤지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임 : 박정미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핑크대 보수.리폼 주방상판 보수, 리폼 / 핑크대 문짝 교체, 수리 / 자연염마광택 배소원 (루시아) 010-8445-5004</p>	<p>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후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중환(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하나투어 공식예약인증센터 여행매니저닷컴 국내, 해외여행, 항공권, 비자발급대행 741-1100 해운대구 중동1로 37번길 12 3층</p>	<p>SM수맥흡침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p>